

# 위드 코로나 대비 경기부양·민생안정 '총력'

도, 맞춤형 일자리 29만여개 마련·재해 예방·소방장비 등 확대·지원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 맞춤형 회복 확대지원 등 내용 예산안에 포함

전북도 202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부양을 위해 2,322억 원을 편성했다.

##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최대 3%의 이자지원에 74억 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카드매출액의 0.8%)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12억 원이 증기한 34억 원을 반영했다.

## ▲ 기업지원

중소기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한 '성장사다리' 제도에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기한 118억 원을 반영했다.

EV용 소재부품 성능평가와 화학기반 제조기업의 친환경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새만금신단에 120억 원을 들여 기업지원에 나섰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해 97억 원을 지원한다.

◆ 고용유지 및 2만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8,194억원)

## ▲ 청년 특화일자리 지원

직접일자리 제공·청년 창업공간 지원, 청년진로 맞춤형 민간일자리연계, 비대면·디자털 분야·전문교육 역량향상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37억 원이 증기한 135억 원을 반영했다.

강소기업, 디지털분야 등 우수청소년에 대한 직접일자리 200명 창출을 위해 1인·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반영했다.

도내 19~39세 청년 250명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49억 원을 반영해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공공부문 66,000여 개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25억 원이 증기한 1,72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353억 원을 반영, 2,254명을 고용해 3만 4천여명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증대를 위해 보조교사와 연장교사(1,910명)인건비 지원을 위해 182억 원을 반영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전업체 371명, 시간제 142명, 복지일자리 764명을 고용해 공공기관 복지행정 업무 지원에 119억 원을 반영했다.

## ◆ 전북형 뉴딜 본격 추진(5,102억



원)

### ▲ 그린뉴딜

'풀력 핵심소재 부품 종합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29억 원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18억 원), 소규모 수소충전시설 구축(6억 원), 조선 친환경 대체연료 엔진개발 및 인프라 구축(4억 원) 등 대체연료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설웨어·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9개소를 신설, 41억 원 수요가 많은 전기차량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디지털 혁신

홀로그램 5대피제·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인프라구축(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을 위해 7억 원, 세계잼버리 행사에 활용할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로 연도별 계획에 따라 9억 원을 반영했다.

전북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79억 원을 운송주차장 차량점수 위험 신속얼립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을 반영했다.

### ▲ 인증방 강화

어르신들의 정보통신기술(AI, 생활스파크 등)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도민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농어촌의 119개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를 위해 6억 원, 도민대상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43억 원 등도 반영했다.

### ◆ 도민 안심 재난대응체계 구축(2,497억 원)

#### ▲ 재난·재해예방 확대

재난·재해에 도민 스스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각종 분야별 보험가입 확대에 136억 원을 반영했다.

도내 54개소 조기경보시스템·자료연계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68억 원을 반영했으며, 핵심뿌리기술 R&D

원, '재난관리지원 광역거점센터' 신축에 1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위험지구, 저수지, 소규모 위험시설 등 주변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시설정비를 위해 879억 원을 반영했다.

### ▲ 김영봉예방 지원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위한 예방 접종 시행비에 내년부터 지방비 154억 원을 포함한 307억 원을 투입해 민간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유동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지원하는 등 국가지정 21종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178억 원을 반영했다.

### ▲ 스냅서(장비) 확충

소방서 및 센터 등의 이전·신축을 위해 204억 원, 3년간 추진했던 신형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에 230억 원, 소방장비 구입에 145억 원을 반영했다.

### ◆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8,120억 원)

#### ▲ 스냅농정

1인 15분弱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을 년소득 37백만 원 미만 소득자 까지 포함해 지원(1천명 추가)하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을 1,500대(총 500대) 까지 확대해 지원장을 늘렸다.

또한 출산여성 농기자우미와, 영농도우미 이용료 현설회를 위해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증액해 지원한다.

학생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15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을 반영했다.

### ▲ 용복한 미래소스업

미래차에 대한 핵심부품 및 소재기술개발을 위해 20억 원 사용후 연료전지의 재사용·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기관센터 마련을 위해 18억 원을 반영했으며, 핵심뿌리기술 R&D

지원에도 10억 원을 반영했다.

수소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완주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57억 원, 소규모 수소충전시설 구축 6억 원,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95억 원, 6개소 수소충전소(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설치에 98억 원, 수소차 562대 보급을 위해 211억 원을 반영했다.

### ▲ 여행체험 1번지

지역의 노후·유휴·문화관광지원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에 선정된 2개 시·군에 30억 원을 반영했다.

### 시·군 대표축제 9억 대회관광지

140억 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무주 생태보령 공원조성(23억 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12억 원), 임실 태조희망의숲 조성(12억 원), 남원 옛다솜이야기원(17억 원) 등을 반영해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 분4별 주요 사업추진

#### ▲ 도시재생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도심지역 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인정 215억 원, 균린재생(일반, 중심시가지형) 581억 원, 취약지역 개조 90억 원 등 총 90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도에서 자체적으로 3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중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3년차 사업비 60억 원도 반영했다.

### ▲ 도로·주차장 개선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및 주택가 등에 20개소 2,398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60억 원, 2개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21억 원을 반영했다.

지방도 덕쓰우기·소규모 구조개선 등의 지방도 유지관리와 도로 정비를 위해 650억 원을 반영했다.

### ▲ 악취 및 미세먼지 대책

돈사·토비회시설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지원하며, 토지 매입이 완료된 '식산왕궁'과 김제용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80억 원을 주거 조성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축산농가 및 지원조직체 380개소에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47억 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권 주변 조립사업에 14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10억 원, 노후경유차 절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등을 위해 414억 원도 반영했다.

/유호상 기자

# 입소문난 공짜강의, 수강자 몰린다

외국어·공무원·자격증·인문교양 등 도민 대상 486개 강좌 제공 전북도 도민강좌 웹주소(jeonbuk.npagoda.com)를 통해 수강

전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옮해 과정에 반영해 인문교양과정을 신설했으며, 건강관리, 은퇴설계, 귀촌 등 교양강좌 부분을 대폭 확충했다.

도민강좌 사이트(jeonbuk.npagoda.com)에서는 외국어, 자격증, 공무원, 인문교양 등 도민 대상으로 486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민강좌는 PC환경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명 강사진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에 힘입어, 11월 현재 수강 1만 건을 크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유수한 강의와 솔직운 접근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업무로 바쁜 직장인들뿐 아니라, 구직과 자기개발을 위한 수강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외국어 강의 수강건수가 4,000건(42%)을 훌쩍 넘어서고, 20~30대 연령의 수강건수가 전체 48.7%를 차지하며,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 과정 중, 은퇴후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인종가사, 자격증 과정에 40~50대의 수강이 두드러지고 있고, 주택관리사와 직업상담사, 물류관리사 과정도 꾸준한 수강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강자들의 의견수렴을 교육과정에 적용한 모습도 엿보인다.

/유호상 기자

# 도, '상호존중과 배려' 실천 캠페인 전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지정·운영…갑질예방·청렴문화 확산 도모



전북도가 전 청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 직원 30여 명과 전북도 공무원 노조 간부 10여 명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갑질예방 및 청렴 홍보물과 배려비타민을 나눠 주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는 2021 갑질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도청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서로가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도는 '서로가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 청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 받기, ▲직급에 관계 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의 흐침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5대 실천과제를 공유함으로써 갑질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갑질은 조직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개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조직 내 상호존중과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각각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가 갑질 행위 신고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갑질 예방 및 균열을 위해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력공급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보행환경 개선 및 미관개선을 위한 지중화공사
2. 지중화 확정지역: 남원시 향교 오거리 ~ 동립교 사거리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0월
4. 신·증설 고객의 지중화공급 시행 기준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약도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한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도로와 교차하는 1불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 이별도로가 없는 지선도로(막다른 골목)인 경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50m 까지의 가공설비
7. 고객 안내사항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증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공급약관 및 신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증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8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